

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암 아는만큼 이긴다

<13> 전립선암

증가율 1위 암...저지방 식습관 길러라

전립선암은 미국과 유럽에서 남성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파르게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남성암 중 10위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5위로 남성암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암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국내 전립선암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5세 이상 남성 4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선별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의 발견율은 100명당 5.2명으로 일본 3명, 중국 2명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전립선암은 약 4배 정도 증가해 간암이나 위암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암으로 기록됐다.

전립선암은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는 65세 미만보다 약 4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백인이나 흑인이 동양인에 비해 그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전립선암이 있다면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은 3배 이상 높다. 또한 고지방식을 섭취하는 남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립선암은 서서히 진행되는 전립선의 주변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상증상이 없는 모든 남성들은 50대부터,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대부터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매년 받아야 한다. 흔히 야간뇨나 빈뇨 등의 배뇨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립선암의 증상으로 오인하는데 이는 노령에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립선암의 진단=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하며, 전립선특이항원(PSA)을 검사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전립선암은 직장수지검사상 전립선에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거나 혈액검사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치가 정상치보다 높을 때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전립선특



김철성 교수가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인해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 식단 등 조언을 해주고 있다.

유전보다 환경이 원인...조기 발견 중요

토마토 예방 효과, 생마늘은 성장 억제

이항원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다 전립선암은 아니다. 전립선특이항원치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있어도 상승하며, 부부관계 직 후나, 전립선생검 후, 그리고 급성요폐가 발생해도 상승한다. 따라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경직장애와 검사를 이용해 전립선조직에 대한 생검을 시행해 확인해야 한다.

전립선암이 있어도 전립선생검에서 반드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전립선생검은 일회성의 검사로 전립선암을 확인할 가능성은 30~40%이기 때문에 1차 생검에서 전립선암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전립선 특이 항원치를 측정해 정상치보다 높을 때는 6~12개월 후에 재생검을 시행해야 한다. 일단 생검으로 전립선암이 확인되면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사선검사가 필요하다.

◇전립선암의 치료=암의 진행정도 즉 병기에 따라 다양하다. 초기에는 근치적 수술이나 방사선치료가 시행되며, 전이가 된 경우에는 호르몬요법이나 화학요법이 시행된다.

근치적 수술은 초기암이고 연령이 75세 이하 일 때 시행하는데 수술 시기는 전립선 조직검사 시행 후 6~8주에 시행하

는 것이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술의 종류는 절개수술이나 복강경수술 또는 로봇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합병증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 나 대개 1년 정도가 지나면 90~95% 이상 호전된다. 한편 고령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상태가 수술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할 때는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는 호르몬요법을 시행하며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80~90%는 호르몬치료가 잘 반응한다.

◇전립선암의 발생과 예방=전립선암의 발생은 환경적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이민간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은 각각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보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식생활의 서구화 특히, 동물성 지방의 섭취와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전립선암을 예방하려면 동물성 고지방식을 피하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전립선암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다.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 호박, 당근, 시금치, 상추와 같은 녹색야채도 자주 섭취해야 한다. 된장, 두부, 청국장 같은 콩이 많이 함유된 전통식품도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주부들이 양념으로 주로 사용하는 마늘도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식품이다. 카테킨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차도 암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암환자들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성분분석이 되어있지 않고 작용기전이 확실치 않은 식품이나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1년에 한번 씩 정기검진을 받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하면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예후도 좋다. 그리고 평소 식생활을 개선해 저지방 식이를 주로 하게 되면 생활습관병도 예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립선암도 예방이 가능하다.

〈조선대병원 비뇨기과 김철성 교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시엘병원 불임·습관성 유산 연구소

다낭성 난소증후군 유전자변형 규명

‘국제분자의학저널’에 게재

시엘병원 불임·습관성 유산 연구소(병원장 최범채·사진)는 24일 불임(난임)을 초래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알려진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형 중 한 사례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산부인과학 불임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인 ‘국제분자의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인체 호르몬 대사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CYP19 유전자, 인슐린, 황체호르몬 유전자의 유전적 변형이 질환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시엘병원 연구소는 또 다른 대사호르몬인 ‘Adiponectin’ 유전자에 주목, 이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난 단일염기서열 변형이 질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소는 이중 한개의 변형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 통계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소측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변형이 세대

유전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불임 환자의 유전적 분석을 통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는 표식자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진 여성은 무월경, 생리불순, 피부트러블(여드름), 남성형 체모과다, 피부자색, 과체중으로 고생하는데 내과적으로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 부인적으로는 자궁내막암 발생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병원 불임·습관성 유산 연구소는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관련한 연구를 10여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이 질환과 관련해 국내외 학술상을 3차례나 수상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5년 인증’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최우수 등급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1966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에 설립된 사립의과대학으로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의학과 평가에서 우수학과 평가에서 원전 인정 등 그동안 실시된 3차례 인증

평가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선의학교육센터(임상수기센터)와 멀티미디어 학습실, 문제은행학습실, 의학정보실, 기초통합실습실, 임상실습실, 동영상 실습이 가능한 해부학실습실 등 선진의학교육을 할 수 있는 최첨단 하드웨어를 갖춘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인프라로 의학연구, 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내성세포연구소, 방사선응용연구소, 단백질구조연구소, 당뇨병연구소 등을 개설해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의과대학 학술지 ‘전남 메디컬 저널’

한국연구재단 의학학술지 등재후보에 선정

전남대 의과대학(학장 이민철)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전남 메디컬 저널(Chonnam Medical Journal)’이 국립대 의과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 의학학술지 등재후보로 선정됐다.

지난 1964년 창간된 이 학술지는 의과학연구소에서 매년 3회(4·8·12월) 발간하고 있으며, 기초 및 임상의학분야의 종설(Reviews), 원저(Original Article), 사례보고(Case Re-

port)와 국내·외의 기초 및 임상의학연구자들의 질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의 전문성,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해 의학학술지 등재후보로 선정했다. /채희중기자 chae@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00611-증-19671호 광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간다. 이와 같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 필수록 피부가 처지면서 뺨과 코 옆, 입주변 등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노화현상인 피부 건조증이 더해지면 잔주름이 더욱 악화된다. 물론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피부의 섬유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젤리 상태의 물질인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특히 피부에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피부를 재생시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내 성분으로 피부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개월에 걸쳐 피부내에서 안전하다. 이 때문에 최근 피부진피층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함으로써 얼굴과 목에 생긴 주름을

개선하는 히알루론산 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히알루론산은 인체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점액질 물질로서 특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노화현상이 진행 되는 것이다.

히알루론산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침 구멍 감염우려와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알레르기)이 있을 수도 있다.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내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주로 손등, 목 등 전면에 걸쳐 주름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시술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으며 얼굴 전체 시술시 15분 가량, 목 전체 시술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통 2~4주 간격으로 3회 시술받게 된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히 피부와 관절, 연골 등에 많이 분포한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맑고 투명한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히



062-227-3777 무등극장 앞

